

#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지식 구조 분석\*

- 키워드 네트워크와 공저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 Knowledge Structure Analysis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Research in Korea: based on Keyword Network and Co-Authorship Network

이 석 형 (Seok-Hyoung Lee)\*\* 남 정 연 (Jeong Yeon Nam)\*\*\*

장 혜 선 (Hyesun Jang)\*\*\*\* 김 가 현 (GaHyun Kim)\*\*\*\*\*

성 고 운 (Gwoon Sung)\*\*\*\*\* 차 은 석 (EunSeok Cha)\*\*\*\*\*

김 은 혜 (EunHye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 결 론   |
| 3. 연구 방법         |          |

### 초 록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의 지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정보학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8~2025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30편을 대상으로 한 결과, '노인'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 '서비스 연계', '탈시설 및 취약계층', '연구 동향 및 지적 구조 분석' 등 키워드 군집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노인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 등 타 대상군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일부 핵심 연구자 중심의 소규모 협력망이 존재했으나, 전반적으로 연구자 간 연결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돌봄의 융합적 성격에 비해 학문 간 협력이 미흡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향후 학제 간 협력 기반 마련과 정책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knowledge structure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in Korea since 2018. Analyzing 230 KCI-indexed articles (2018-2025), Key clusters emerged around 'elderly' and 'aging in place,'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service linkage,' and 'deinstitutionalization.' However, research focused heavily on the elderly, with other groups like the disabled relatively sidelined. Co-authorship analysis revealed small clusters around core researchers but overall weak connectivity, suggesting insufficient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despite the field's integrative nature.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al basis for future cross-disciplinary cooperation and policy linkage.

키워드: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분석, 지식 구조, 군집 분석, 학제간 연구

Community Care, Network Analysis, Knowledge Structure, Clustering Analys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 본 과제(결과물)는 2025년도 교육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으로 대전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과제관리번호: 2025-RISE-06-012).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kyi@cnu.ac.kr / ISNI 0000 0004 6771 8906) (제1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사과정(tktmxpfx@naver.com / ISNI 0000 0005 2972 6777) (공동저자)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수료(mitotoim@gmail.com / ISNI 0000 0005 2970 6872) (공동저자)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석사과정(happythings8817@gmail.com / ISNI 0000 0005 2970 6899) (공동저자)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석사과정(qxcikorea@naver.com / ISNI 0000 0005 2970 6880) (공동저자)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echa5@cnu.ac.kr / ISNI 0000 0004 5951 9755) (공동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lavender96@naver.com / ISNI 0000 0005 1690 069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1): 325-350,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1.32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인구 구조의 급격한 노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는 현대 사회의 보건복지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그 비율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 2025), 돌봄 수요의 급증과 사회적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18년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9). 기존의 병원 및 시설 중심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와 필요한 돌봄이 중복비용 발생 없이 최소한의 행정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정지원, 김정석, 2022). 2019년 선도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2026년에는 기존 노인,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확대하여 생애주기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돌봄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정책은 선도

사업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간의 서비스 분절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 미비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Park et al., 2025; 유애정, 박현경, 2022; 최지희 외, 2022).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학제적 융합이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정재연, 남석인, 2024), 실제 연구 지형은 학문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 복지, 간호, 행정 등 다양한 학제 간 교류와 강고한 연구 공동체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통합하여 최초로 도입한 영국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Park et al., 2022). 때문에 현재까지의 많은 논의는 사회복지 개별 학문 분야 내의 고유 담론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학제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또한 희소하고 분절적인 양상을 띤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KCI 등재지 논문 230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의 지식 구조를 규명하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하위 주제군의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여 주요 담론이 정책적 지향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공

동체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학제 간 연구를 주도하는 핵심 연구자를 식별하고, 연구자 간 협력망의 연결성 및 분절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학제적 연구 주제 중 하나이며, 연구성과가 빠르게 축적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 하위 주제 간 관계가 복잡해져 연구지형의 전체 윤곽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핵심 개념과 주제군의 연결 구조와 연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연구 영역의 주제 확산과 협업 확산이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국내 논문 데이터에 내재된 서지적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지식 구조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주제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김진원, 이한술, 2024)하는 문헌정보학의 핵심 연구 영역으로서, 기존의 개별 학문 단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특정 지식 영역의 지적 구조·협력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다학제적 융합 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

으로 논의되어 온 ‘커뮤니티케어(communitary care)’ 개념에 착안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해외 국가들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단일 개념을 확립하지는 못하였으며, 각국의 복지체계 발전 과정과 시대적·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정지원, 김정석, 2022). 이로 인해 community care, community-based care, home-based care, integrated community care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국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은 공통적으로 ‘살던 곳에서의 생활 유지(Aging in Place)’와 ‘통합적·다학제적 지원’을 핵심 원리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를 주요 개념으로 볼 것인지, ‘통합돌봄’을 중심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개념의 해석과 지향점은 학제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일한 정의로 수렴되기보다는 각 학문 분야의 문제의식과 분석 관점에 따라 다층적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먼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이자 복지 전달체계 재편 전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시설 중심 보호체계를 비판하며, 지역 단위에서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제공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주목한다. 특히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필요한 대상에게 민관 협력과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 거버넌스의 제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박수선, 2024; 정재연, 남석인, 2024).

반면 간호학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원활한 이행(transitional care)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한다. 이들 연구는 통합돌봄을 ‘케어 코디네이션(care coordination)’과 ‘지역기반 건강관리 연속성’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조정하는 통합적 케어 모델로 정의한다(한영란, 2019). 특히 만성질환 관리, 재입원 감소, 약물오류 예방 등 건강성과 비용 절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방문간호, 가정간호,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한편 건축학 및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직접적인 정책 개념으로 정의하기보다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 위한 물리적·공간적 조건에 주목하여 개념을 확장한다. 이들 연구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주거 공간과 지역 생활환경을 통합돌봄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이를 ‘커뮤니티케어 디자인’ 또는 ‘돌봄 친화적 주거환경’으로 개념화한다. 즉, 고령자와 돌봄 대상자가 시설 이전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이 돌봄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인영 외, 2023).

이처럼 국내 학술 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제도와 전달체계를, 간호·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서비스 내용과 실천,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간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각각 상

이하게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학제별 개념화의 다양성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지닌 복합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통된 개념적 틀의 정립과 학제 간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분석 선행 연구

텍스트마이닝과 지식 네트워크 분석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대량의 문헌 속에 내재된 지식 구조와 연구 동향을 규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특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주제 간 연관성과 군집 구조를 시각화하여 특정 학문 분야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디지털 시민성(송현경, 2025), 감염병 연구(김주섭 외, 2025)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최근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전용미와 강기정(2019)은 2008~2018년간 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논문 161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복지’, ‘지역사회’, ‘노인’ 등이 중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연구 주체들이 복지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현준과 조현(2022)은 토픽 모델링을 통해 관련 논문과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정책 고찰’과 ‘선도사업’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생활 공간’, ‘서비스 개선’, ‘연계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논의가 심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김정석 외(2022)는 장애인 돌봄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정책적 인식과 접근의 변화가 학술 담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어머니', '발달장애'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탈시설 관련 키워드는 주변부에 위치하는 등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김시은과 유성은(2022)은 '노인 돌봄'과 '노인 공간'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및 요양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된 핵심어임을 시사하였으며, 권순희와 문재원(2024)은 코로나19 전후 돌봄 담론의 변화를 비교하여 팬데믹 이후 돌봄의 공공성과 필수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태현 외(2022)의 부산진구 대상 연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주거 지원을 담당해야 할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네트워크 외곽에 위치하여 통합돌봄의 핵심인 주거와 돌봄의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이상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초기 단계나 특정 대상(노인, 장애인),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거나 실행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으며, 주로 키워드 빈도나 주제 변화, 혹은 지역 내 기관 간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키워드·공저 네트워크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통합돌봄 연구

의 내용적 편중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구자 간 협력의 분절성'을 규명하고 다학제적 융합이 필수적인 통합돌봄 정책의 학술적 기반이 실제로는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데이터 수집 및 대상

분석 대상 데이터는 국내 학술논문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통합돌봄 관련 국내 KCI 등재 학술지 논문 230편을 수집하였다. 2018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예고된 시점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해이며, 2025년까지의 약 8년간 출판된 문헌을 포괄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의 최신 동향까지 반영하고자 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정책의 핵심 용어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하위 주제를 포괄하기 위해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등을 확장 검색어로 활용하였다. 1차 검색 결과에서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를 검토하여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적합한 230편의 문헌을 확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논문 제목, 저자, 초록, 저자 키워드, 발행연도, 학술지명 등의 서지 정보를 포함하며, 엑셀 형식으로 코딩하여 전처리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 3.2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추출은 제목·초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저자 키워드 항목은 표현의 비표준 문제 등으로 추출 대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 1) 형태소 분석 및 토큰화: Python 기반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를 활용하여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고, 연구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사 위주로 추출하였다.
- 2) 불용어 처리: '연구', '분석', '고찰', '영향', '의미' 등 학술 논문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나 주제적 변별력이 낮은 단어들을 불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제거하였다.
- 3) 유의어 및 복합명사 표준화: 의미상 동일

하거나 유사한 단어들을 <표 1>과 같이 대표 키워드로 통일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Elderly', 'Senior', '고령층', '노인'은 '노인'으로 통일하였으며, 'Aging in Place', 'AIP', '지역사회계속거주', '지역사회지속거주', '지역사회거주' 등은 '지역사회계속거주(AIP)'로 통일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한 논문당 평균 약 14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전체 논문에서 추출된 고유 키워드의 총 개수는 1,746개였다. 이 중 한 번만 등장한 키워드가 1,370개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2회 등장 키워드 199개, 3회 이상 반복 등장한 키워드는 177개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저빈도 단어는 네트워크의 밀도를 지나치게 낮

<표 1> 지역사회 통합돌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사례

	추출된 키워드 (출현빈도)	대표어
1	지역사회돌봄(13) / 통합돌봄(4) /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2)	지역사회통합돌봄
2	노인장기요양보험(11) / 장기요양보험(5) / 장기요양(3)	노인장기요양보험
3	민관협력(18) / 공공민간협력(1)	민관협력
4	사례연구(26) / 사례분석(5) / 질적사례연구(3)	사례연구
5	재가서비스(6) / 재가돌봄서비스(3)	재가돌봄서비스
6	복지전달체계(5) / 보건복지전달체계(3) / 통합전달체계(1) / 사회복지전달체계(1)	복지전달체계
7	지역사회계속거주(AIP)(20) / 지역사회계속거주(10) / 지역사회지속거주(AIP)(2) / 지역사회지속거주(1) / 지역사회거주(AIP)(1) / 지역사회거주(2)	지역사회계속거주(AIP)
8	지역포괄케어시스템(11) / 지역포괄케어(7)	지역포괄케어
9	ADL(1) / 일상생활수행(ADL)(1) / 일상생활수행능력(ADL)(1) / 일상생활수행능력(1) / 일상생활활동(ADL)(1) / 일상생활활동(1)	일상생활활동(ADL)
10	주거지원(9) / 주거지원서비스(3)	주거지원
11	허약노인(Frail Elderly)(1) / 허약노인(6)	허약노인

추고 분석의 복잡성을 높여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량이 적고 우연적 동시출현 가능성이 높은 1~2회 등장 키워드를 배제하여 네트워크의 시각적 명료성과 군집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3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및 지표 산출

키워드 네트워크는 앞서 정제된 177개 주요 키워드를 노드로 삼고, 동시출현 관계를 링크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한 키워드 쌍이 같은 논문 내에서 함께 등장하면 한 번의 동시출현으로 간주하였다.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두 키워드의 연관 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는 Python과 VOSviewer 소프트웨어를 병행 활용하였다. Python을 통해 동시출현 행렬을 생성하고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VOSviewer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 및 군집탐색을 수행하였다. VOSviewer는 대규모 계량서지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시각화하고 군집화할 수 있는 도구로, 동시출현 데이터에 대해 Leiden Algorithm과 같은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키워드들의 군집을 식별해준다(van Eck & Waltman, 2010).

본 연구에서는 노드 가중치로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DF, document frequency)를, 링크 가중치는 키워드 쌍의 동시출현 횟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중심성 지표 산출은 링크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비가중 네트워크에서 수행하였으며, 출현 빈도와 동시출현 횟수는 네트워크 시각화 및 군집 탐색 및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비가중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 지

표를 산출한 이유는 본 연구가 신생 연구영역의 전반적 연결 구조를 탐색적으로 비교·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가중 중심성은 가중치를 거리로 변환하는 추가 가정이 필요해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첫째,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가 직접 연결된 링크의 수로서 허브정도를 나타낸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많은 다른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며, 다양한 주제와 폭넓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모든 노드에 얼마나 가까운가(경로 거리의 역수 평균)로 정의된다. 값이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가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여 정보 전달 거리가 짧고 접근성이 좋음을 뜻한다. 셋째,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를 얼마나 많이 중개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브로커 혹은 브리지 역할의 지표로서, 특정 키워드가 서로 다른 주제 군집 간 연결을 매개하며 지식 구조를 확장하거나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세 중심성 지표는 상호 보완적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이재운, 2006).

중심성 지표 산출에는 각 키워드 노드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계산하고 정규화하였다. Python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중심성을 구한 후 0~1 사이 값으로 정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표 간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심성 지표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네트워크에서 허브 역할과 브로커 역할의 관계성도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중심성 지표는 비가중 네트워크 기반이므로 동시출현 강도가 높은 관계와 낮은 관계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3.4 공저자 네트워크 구성 및 분석

공저자 네트워크는 수집된 논문의 저자들 간의 공동연구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230편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저자(국내 저자 기준)를 노드로 하고, 같은 논문을 함께 쓴 경우 저자들 간에 링크를 부여하였다. 한 편의 논문에 저자가 n명이라면 그들 사이에  $(n \times (n-1)) \div 2$ 의 공저 링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공저자 네트워크에서, 노드 수(연구자 수), 링크 수(공저 관계 수), 연결성 지표 등을 산출하였다.

저자명 데이터의 경우 동명이인 문제나 표기 변형(예: 이니셜 표기 등)을 수작업으로 식별·정제하였다. KCI 제공 저자 ID나 ORCID가 있었다면 참조하였고, 없는 경우 소속과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정제 결과 최종 저자 노드의 수는 464명, 공저 링크는 734개로 나타났다. 이는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 수가 약 2.02명 수준임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공저자 네트워크 또한 Python NetworkX로 분석하고 VOSviewer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공저자 네트워크에서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표를 적용하여 핵심 연

구자들을 도출하였다. 중심성 지표 산출은 공저 관계의 존재 여부에 기반한 비가중 네트워크에서 수행하였다. 공저 횟수나 저자 논문수는 중심성 결과 해석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통계 지표로 제시하고, 중심성 지표와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연결 중심성이 높은 연구자는 협업 허브, 매개 중심성이 높은 연구자는 브로커/중개자로 간주하여 네트워크 내 역할을 파악하였다. 다만, 비가중 공저 네트워크는 강한 반복 협력과 일회성 협력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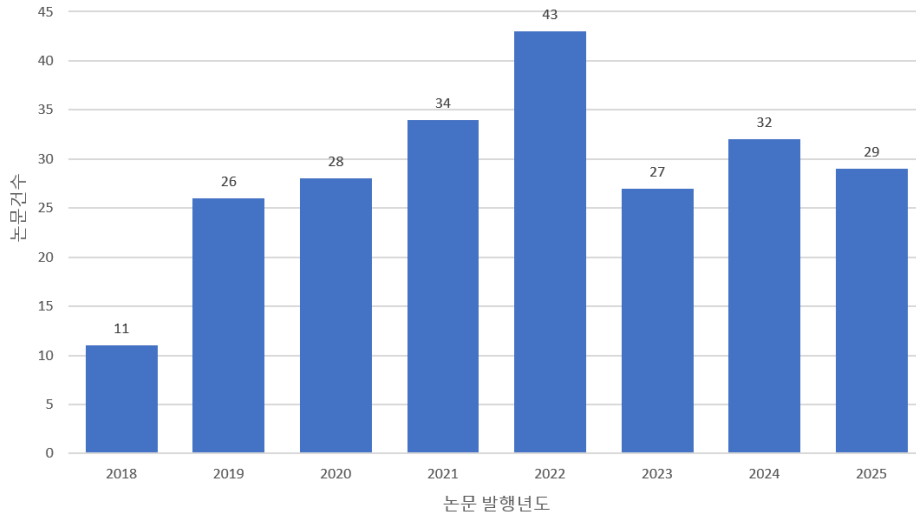
## 4. 분석 결과

### 4.1 연구 문헌의 기초통계 분석

분석의 기초가 된 논문 230편에 대한 연도별·학술지별·분야별 분포를 통해 국내 지역 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발전 양상과 학제적 확산 정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018년 정책 발표 이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수집된 23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정책 초기인 2018-2019년에는 정책의 개념 정립과 해외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나, 2020년 이후 선도사업의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약 45편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시범사업 및 정책 프레임 확산과 연구계의 반응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는 학술지별/학문분야별/사례연구대



〈그림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논문의 발행년도별 게재건수

〈표 2〉 학술지별/학문분야별/사례연구대상국가별 분포 현황

순위	학술지별		학문분야별		사례연구대상국가별	
	학술지명	건수	학문분야명	건수	국가명	건수
1	인문사회 21	12	사회복지학	39	한국	200
2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1	사회과학일반	34	일본	29
3	장기요양연구	9	학제간연구	12	영국	9
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	의료/복지/사회정책	10	미국	3
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장애인복지	7	중국	2
6	한국노년학	5	지역사회복지	7	덴마크	1
7	보건사회연구	5	간호학	6	스웨덴	1
8	사회복지법제연구	4	건축공학	5	짐바브웨	1
9	사회복지정책과실천	3	작업치료학	4	쿠바	1
10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3	컴퓨터학	4	대만	1
11	생명연구	3	국제/지역개발	4	호주	1
12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3	사회복지법제	4	홍콩	1
13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3	사회보장/사회법	4	네덜란드	1
14	대한보건연구	3	정책학	3		
15	한국장애인복지학	3	서양철학	3		
16	상황과복지	3	기타과학기술학	3		
17	지역사회연구	3	정보서비스	3		
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3	법학	3		
19	산업과 과학	3	지역사회보건	3		
20	한국농촌의학학회지	3	실내환경디자인	3		

상국가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논문의 분포 특성을 보인 것이다. 우선 학술지별 분포에서 주요 게재 학술지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21』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케어메니지먼트연구』(11편), 『장기요양연구』(9편), 『한국지역사회복지학』(7편), 『한국사회복지행정학』(6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가 복지 기반의 실천학문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사례관리와 장기요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반면, 간호학, 정책학, 정보학, 건축학 등 분야의 학술지에서도 일정 비율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나 상대적 비중은 낮았다.

연구 분야별 분류(KCI 등재 기준)에서는 사회복지학(기타사회복지학 등 포함)이 39편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장애인복지(7편) 및 지역사회복지(7편)를 포함하면 복지분야의 논문이 53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일반(34편), 학제간연구(12편), 의료/복지/사회정책(10편)가 뒤를 이었다. 간호학(6편), 작업치료학(4편), 지역사회보건(3편) 등 보건 의료 관련 분야의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는 통합돌봄 연구가 보건과 복지의 융합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담론은 여전히 복지계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이다.

연구 대상 국가 분석에서는 전체 논문 중 87%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일본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복지 모델은 주로 비교 분석 또는 제도 참조 목적이어서 다루졌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정책 도입 배경과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자주 언급되는 참조모형으로 나타났다.

##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4.2.1 전반적인 네트워크 특성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와 응집력(Cohesion)은 연구 주제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거대한 지식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와 출현 빈도 3회 이상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구조적 결속력을 진단하였다.

구축된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는 177개 핵심 키워드 노드들 사이에 총 2,843개의 링크가 형성된 구조였다. 필터링된 177개 용어들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밀도는 0.183으로 산출되었는데, 전체 네트워크의 낮은 밀도(0.013)와 대비되는 결과로, 해당 핵심 키워드 집합 내에서는 상당히 촘촘한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177개 용어들 간에 평균적으로 한 키워드가 32개 이상의 다른 키워드와 연결될 만큼 동시출현 관계가 빈번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에서 주요 개념들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연구자들이 통합돌봄을 다룰 때 특정 몇 가지 키워드만 고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관련 개념들을 함께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주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인', '전달체계', '주거지원', '보건의료' 등의 하위 범주들과 긴밀하게 엮여 종합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근접 중심성 지표 분석에서도 확인되며, 주요 상위 키워드들의 근접 중심성 값은 급격한 편차 없이 상위권에

〈표 3〉 공출현 키워드 상위 40개 현황

순위	키워드 1	키워드 2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1	키워드 2	출현빈도
1	노인	커뮤니티케어	73	21	보건복지연계	커뮤니티케어	13
2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49	22	재가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	12
3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40	23	지역사회통합돌봄	포커스그룹인터뷰	12
4	노인	지역사회계속거주	22	24	노인	보건복지연계	11
5	노인	일본	20	25	노인	사례연구	11
6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통합돌봄	20	26	노인	장애인	11
7	일본	지역포괄케어	19	27	선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11
8	일본	커뮤니티케어	19	28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11
9	사례연구	지역사회통합돌봄	18	29	지역포괄케어	커뮤니티케어	11
10	지역사회계속거주	지역사회통합돌봄	18	30	질적연구	커뮤니티케어	11
11	지역사회계속거주	커뮤니티케어	18	31	ICT	노인	10
12	노인	장기요양보험	16	32	ICT	커뮤니티케어	10
13	노인	지방자치단체	15	33	노인	삶의질향상	10
14	노인	지역포괄케어	15	34	노인	초고령사회	10
15	정부	커뮤니티케어	15	35	민관협력	사례연구	10
16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케어	15	36	보건복지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	10
17	지역사회통합돌봄	질적연구	15	37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10
18	지역주민	커뮤니티케어	15	38	주거지원	커뮤니티케어	10
19	사례연구	커뮤니티케어	14	39	네트워크분석	지역사회통합돌봄	9
20	민관협력	지역사회통합돌봄	13	40	노인	재가돌봄서비스	9

조밀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핵심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중심부에서 다른 키워드들과 비교적 짧은 경로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키워드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는 단연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였다. 이 두 용어는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한국어 명칭과 영어명으로서, 각각 다수 논문에서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정제 과정에서 두 용어를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 별도 키워드로 남긴 것은, 실제 논문들에서 쓰이는 맥락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빈도 기준으로 ‘커뮤니티케어’가 130회 등장하였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이 117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거의 모든 대상 문헌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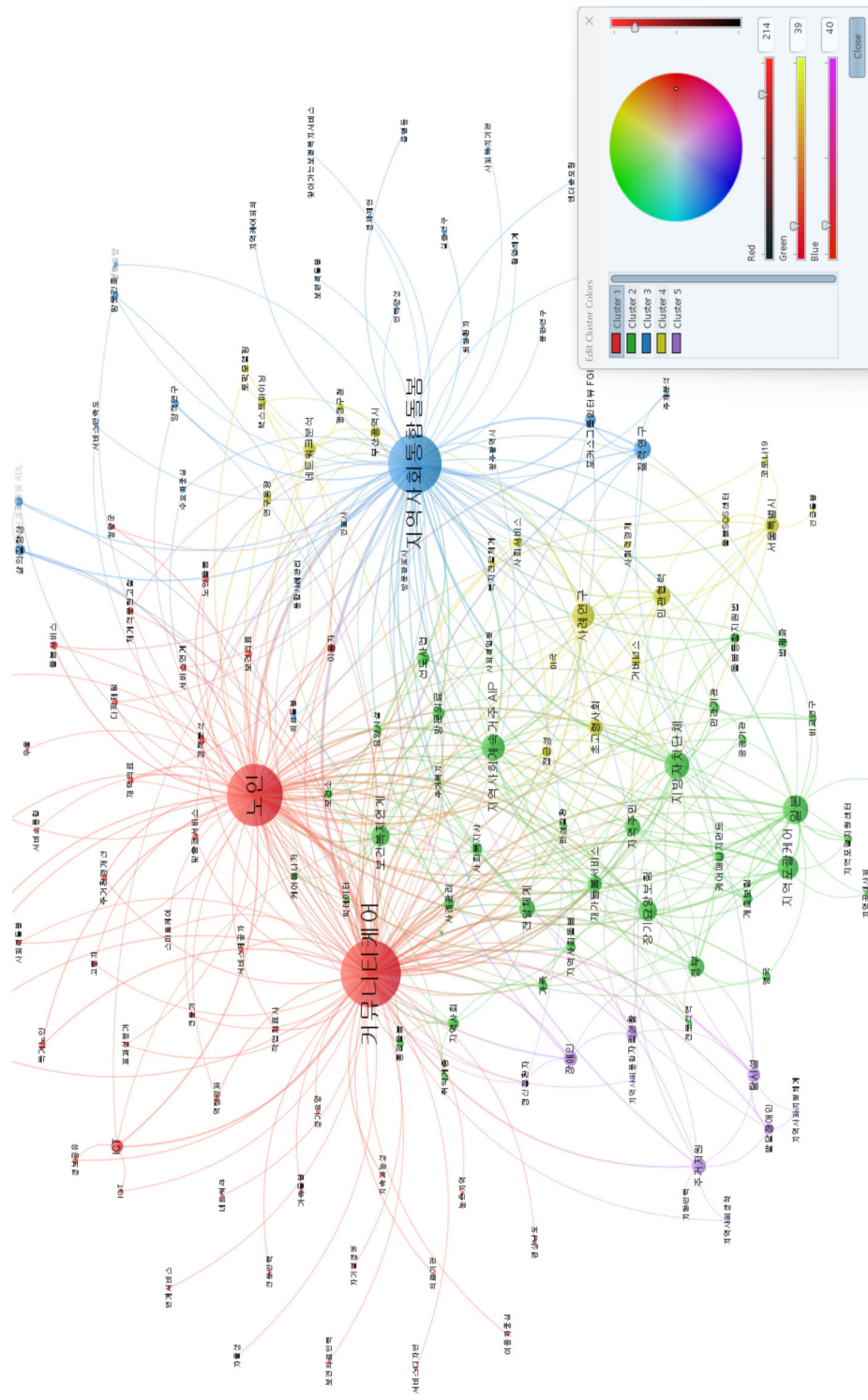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출현 빈도 상위 10개 용어들로는 ‘노인’, ‘지역사회계속거주(AIP)’,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 ‘일본’, ‘질적연구’, ‘보건복지연계’, ‘지역포괄케어’, ‘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ICT’, ‘장애인’ 등이 있다. 이는 통합돌봄 논의가 노인 돌봄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지자체와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관리 기법, 장애인 및 주거지원, 의료 연계, ICT 기술 접목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4.2.2 중심성 분석: 핵심 키워드와 역할

연결 중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 얼마나 많은 동시 출현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분야의 핵심적인

〈표 4〉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번호	용어	출현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빈도	비율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1	커뮤니티케어	130	0.5652	0.6074	1	0.7181	1	0.2333	2
2	지역사회통합돌봄	117	0.5087	0.5685	2	0.6986	2	0.2374	1
3	노인	117	0.5087	0.5513	3	0.6846	3	0.1819	3
4	지역사회계속거주	33	0.1435	0.1794	4	0.5457	5	0.0223	5
5	지방자치단체	32	0.1391	0.1754	5	0.5481	4	0.0218	6
6	사례연구	31	0.1348	0.1691	6	0.5441	6	0.0245	4
7	일본	29	0.1261	0.1536	7	0.5369	7	0.0146	8
8	질적연구	26	0.1130	0.1519	8	0.5356	8	0.0206	7
9	지역포괄케어	20	0.0870	0.1077	10	0.5240	11	0.0068	19
10	보건복지연계	20	0.0870	0.1009	12	0.5204	14	0.0097	13
11	민관협력	19	0.0826	0.1060	11	0.5228	12	0.0082	14
12	지역주민	18	0.0783	0.1095	9	0.5259	9	0.0099	11
13	장기요양보험	17	0.0739	0.0883	21	0.5198	18	0.0098	12
14	서울특별시	16	0.0696	0.1003	13	0.5245	10	0.0120	10
15	전달체계	16	0.0696	0.0934	15	0.5212	13	0.0053	28
16	장애인	15	0.0652	0.0940	14	0.5200	17	0.0079	16
17	재가돌봄서비스	15	0.0652	0.0934	15	0.5203	15	0.0066	23
18	포커스그룹인터뷰	15	0.0652	0.0928	17	0.5166	23	0.0068	20
19	ICT	15	0.0652	0.0923	18	0.5180	19	0.0081	15
20	선도사업	15	0.0652	0.0905	19	0.5154	26	0.0076	17
21	정부	15	0.0652	0.0900	20	0.5203	15	0.0067	21
22	주거지원	15	0.0652	0.0831	22	0.5173	22	0.0049	34
23	초고령사회	14	0.0609	0.0825	23	0.5151	28	0.0049	35
24	지역사회돌봄	13	0.0565	0.0802	24	0.5177	20	0.0067	22
25	삶의질향상	13	0.0565	0.0802	24	0.5177	20	0.0060	25
26	탈시설	13	0.0565	0.0774	27	0.5154	26	0.0048	37
27	사례관리	12	0.0522	0.0797	26	0.5158	24	0.0064	24
28	사회복지사	12	0.0522	0.0774	27	0.5140	29	0.0051	30
29	돌봄통합지원법	11	0.0478	0.0705	29	0.5092	39	0.0058	27
30	접근성	10	0.0435	0.0682	30	0.5116	33	0.0042	40
31	사회서비스	10	0.0435	0.0676	31	0.5157	25	0.0052	29
32	이용자	10	0.0435	0.0665	33	0.5140	29	0.0048	38
33	자립생활	10	0.0435	0.0630	34	0.5131	31	0.0035	47
34	부산광역시	10	0.0435	0.0607	35	0.5114	34	0.0032	50
35	발달장애인	10	0.0435	0.0573	40	0.5086	41	0.0035	46
36	지역사회	10	0.0435	0.0567	41	0.5090	40	0.0032	49
37	네트워크분석	10	0.0435	0.0544	45	0.5084	42	0.0017	83
38	영국	9	0.0391	0.0670	32	0.5126	32	0.0050	33
39	양적연구	9	0.0391	0.0602	36	0.5073	44	0.0047	39
40	보건소	9	0.0391	0.0596	37	0.5111	35	0.0039	45



〈그림 2〉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연구 주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 결과, 상위 5개 키워드는 ‘커뮤니티케어(0.6074)’, ‘지역사회통합돌봄(0.5685)’, ‘노인(0.5513)’, ‘지역사회계속거주 AIP(0.1794)’, ‘지방자치단체(0.175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최상위 3개 키워드와 그 이하 그룹 간의 현격한 중심성 격차이다. 특히 상위 3개 키워드(0.5513~0.6074) 이후, 4~5위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0.17대 수준으로 낮아져 상위 집단과 후속 집단 간 중심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결을 주도하는 중심 축으로 기능하는 반면, ‘AIP’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키워드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가 소수의 거대 허브(Hub)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라는 대전제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이 세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주제가 부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10위권 내에 ‘사례연구(6위)’, ‘일본(7위)’, ‘질적연구(8위)’가 포함된 것은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가 이론적 모형 개발보다는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이나 개별 현장의 질적 탐색에 치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탐색적 연구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주민(11위)’, ‘민관협력(10위)’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5위)’의

중심성이 더 높게 나타나 관 주도의 정책 실행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근접 중심성 측면에서는 상위권 키워드들의 값이 큰 편차 없이 0.5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네트워크의 중심-주변 구도가 완만하고, 주요 키워드들이 서로 거리가 가깝게 위치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노인’, ‘전달체계’ 등 상위 노드들은 모두 네트워크 중심에 밀집해 있으며, 이들 간 최단 경로 거리가 2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키워드 하나를 통해 다른 주제 영역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연구 주제들 간 경계가 크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접 중심성 하위 순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보건복지연계’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근접 중심성을 보였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은 연결 중심성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근접 중심성에서는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의 중심 주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세부 주제(의료, 주거, 요양 등)를 다루든지 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공통 분모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키워드의 근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록 노인 분야에 비해 연구의 절대량은 적지만, 장애인 통합돌봄 논의가 노인 중심의 네트워크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정책적·실천적 맥락을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통합돌봄의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될 때, 기

존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지식의 확산이 용이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매개 중심성 1위가 ‘커뮤니티케어(0.2333)’가 아닌 ‘지역사회통합돌봄(0.2374)’이라는 점이다.

연결 중심성(빈도)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중심성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역전한 현상은 용어의 사용 맥락 차이에서 기인한다. ‘커뮤니티케어’가 학술적, 실행적 차원의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어 온 반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정책 용어로 채택되면서 보건,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실무 영역을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질적인 학문 분야나 연구 주체들이 만나는 융합의 현장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더 빈번하게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의 순위 격차 분석을 통해 ‘숨겨진 중개자’ 키워드들도 발견되었다. ‘건강증진’, ‘돌봄공동체’, ‘회복탄력성’, ‘아동’ 등의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 순위보다 매개 중심성 순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공동체’는 연결 중심성 순위가 129위에 불과하지만 매개 중심성 순위는 9위로, 무려 120계단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돌봄공동체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는 적지만, 제도 중심의 논의와 실생활 중심의 논의를 이어주거나,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 역시 118계단의 순위 상승(연

결 136위 → 매개 18위)을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대상자의 변화를 설명할 때,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심리·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다른 주제들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증진’과 ‘아동’ 또한 높은 순위 격차를 보이며,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혹은 세대 간 통합 돌봄의 가능성을 매개하는 잠재적 융합 키워드로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반면 ‘방문의료’, ‘네트워크분석’, ‘거버넌스’ 등의 키워드는 연결 중심성에 비해 매개 중심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주제들이 특정 연구 영역 내에서만 활발히 논의될 뿐, 다른 주제로 확장되거나 연결되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특히 ‘거버넌스’나 ‘전달체계’와 같은 행정적 용어들이 매개 중심성이 낮은 현상은, 현재의 연구가 거시적인 체계 개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대상자 중심의 미시적 논의에 더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행정학/사회복지학 내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피어슨 상관계수 0.915). 즉 허브 키워드일수록 브로커 역할도 크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합돌봄 연구의 특성상 핵심 개념들이 곧 여러 하위 주제를 아우르며 논의의 중심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근접 중심성과는 상관이 비교적 낮아, 네트워크 중심부에 위치한 정도와 허브/브로커 정도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에 위치하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허브(예: 노인)와, 전체 연결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질적 분야를 잇는 브로커

(예: 주거-의료 연계 관련 키워드)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2.3 키워드 군집 및 주제 영역

본 연구의 키워드 군집화는 VOSViewer에서 제공하는 VOS clustering techniqu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van Eck & Waltman, 2010). 군집 생성을 위해 출현 빈도 3 이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링크 정규화는 연관 강도(association strength)를 적용하였다. 군집화 단계에서 해상도(resolution) 크기는 1, 최소 군집 크기는 5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총 5개의 키워드 군집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5개 키워드 군집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담론 - 이 군집은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로 나타나는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축으로 형성된 핵심 영역이다. 두 키워드는 군집 내부 뿐만 아니라 다른 군집과도 다수 연결되어, 통합돌봄 연구가 실질적으로 노인 돌봄을 중심 의제로 삼아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군집에는 노인 돌봄의 서비스 전달, 이용자 특성, 돌봄 제공 주체(가족/전문인력 등)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나타나며, '커뮤니티케어'가 정책·제도 용어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운영의 상위 개념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군집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실행 및 사례 분석 - 군집 2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중심 노드로 크게 형성된 영역으로, 특히 통합돌봄 정책 실행이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군집의 외곽에는 지역 기반 실행 맥락(예: 지자체/지역 단위 적용을 시사하는 키워드)과 함께,

'사례연구', '실증연구', '혼합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 연구설계·방법론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가 정책 의제를 다룰 뿐 아니라, 정책 실행 사례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검증·평가하는 연구가 상당 비중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집 2는 정책 담론(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실행(사례)-분석 방법이 함께 묶여 있는 군집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군집 3: 지역사회계속거주(AIP) 제도 및 서비스 운영 - 군집 3의 중심에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위치하며, 이 노드는 군집 1과 군집 2 사이 위치해 있다. 군집 내부에는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보건복지연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재가돌봄' 등 제도·서비스 운영을 시사하는 키워드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 구성은 AIP가 단지 '노인'의 하위 주제라기보다, 실제 연구에서는 제도(장기요양/재가돌봄)-전달체계-연계 운영-지자체 추진을 묶어내는 핵심 매개개념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즉 군집 3은 통합돌봄이 지역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인프라(거버넌스·전달체계·연계) 논의가 집약된 군집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집 4: 탈시설 및 취약집단 지원 - 이 군집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주거지원' 등 취약집단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함께 묶이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전체에서 이 군집은 상대적으로 한쪽(주변부)에 위치하지만, 군집 3과의 연결선을 통해 '돌봄'이 노인 영역을 넘어 장애/정신건강 및 주거지원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군집 4는 통합돌봄 담론에서 탈시설 및

취약집단 주거지원과 자립생활을 핵심으로 하는 군집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군집 5: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분석 - 군집 5는 '네트워크분석',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연구동향' 등으로, 개별 정책·대상 논의라기보다 연구를 구조화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과 관련이 있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통합돌봄 연구가 축적되면서 지식 구조를 계량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방법론적 관심이 하나의 군집으로 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상 5개의 키워드 군집은 앞서 문헌검토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들의 토픽 분류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예컨대 윤현준과 조현(2022)의 '생활공간'(주거지원) 토픽은 군집 4와 연결되고, '서비스 개선' 및 '연계 네트워크'는 서비스 운영 인프라를 다루는 군집 3과, '정책 고찰'은 '정책 프레임'을 다루는 군집 2와 대응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정지원과 김정석(2022)이 파악한 통합 vs. 지역거주의 구분이 군집 2(정책 실행)와 군집 3(AIP)으로 재확인되며, 노인 중심·장애인 주변이라는 지적이 군집 1 vs. 군집 4의 분리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 통합돌봄 연구의 지식 구조가 대체로 일관된 주제군으로 전개 되어왔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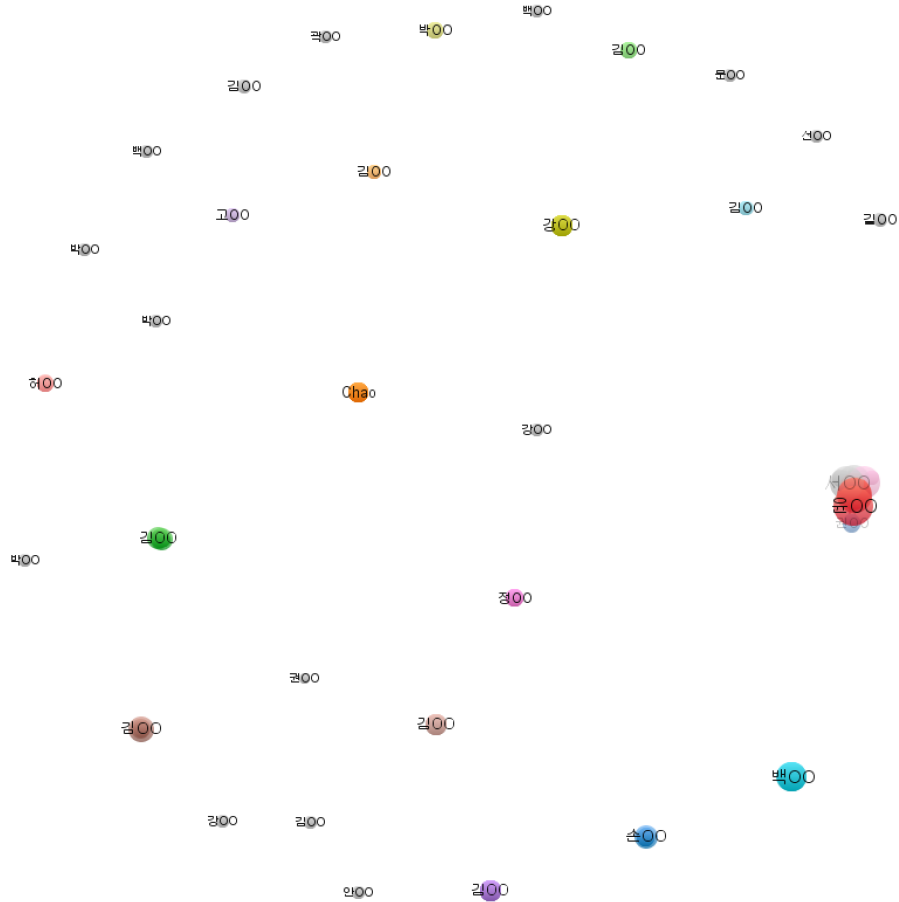
### 4.3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 4.3.1 네트워크의 구조

앞서 구축한 국내 통합돌봄 분야 공저자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이 상당히 단편화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4명의 저자들 중 절대 다수가 1~2편의 논문을 작은 팀 단위

로 수행했을 뿐, 광범위한 협업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전체를 구성하는 연결요소(components) 개수가 163개에 달해, 평균적으로 한 협력 그룹 당 2~3명의 소규모 집단이 산재한 셈이다. 실제 가장 큰 네트워크 그룹이 36명 규모였으며, 나머지 두 번째로 큰 그룹은 14명, 세 번째는 12명 수준으로 급격히 소규모화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통합돌봄 연구가 소규모 연구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연구자들 간 연대가 분산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모든 연구자가 하나의 거대한 협력망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연구 집단이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생태계라는 것이다. 이는 통합돌봄 주제가 다학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 분야별 혹은 프로젝트별로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가 수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분절성의 구조적 배경에는 통합돌봄 연구가 자생적인 학제 간 교류보다는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지자체 등)나 특정 재단의 단기 연구 용역(프로젝트)을 중심으로 발주·수행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들이 '학문적 호기심'에 기반하여 타 분야와 융합하기보다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소규모 팀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는 관행이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강화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이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선도사업',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정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저자 네트워크의 분절성은 신생·다학제 연구영역에서 흔히 관찰되는 협력 구조와도 연결된다. 협력 네트워크 연구에 따르면, 연구



〈그림 3〉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공저자 네트워크

영역이 형성·확장되는 초기에는 학문 분야별 연구 관행과 데이터·현장 접근의 차이로 인해 협력이 분야 내부 또는 기관·지역 단위의 소규모 팀에 집중되면서 다수의 작은 구성요소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Newman, 2001).

네트워크의 밀도 역시 0.0068로 매우 낮아 협력관계의 희소성을 나타냈으며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노드(다른 연구자와 한 번도 공저한 적 없는 경우)도 54명(약 11.6%) 존재하였다. 이는 통합돌봄 분야에 단독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꽤 있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공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분야에서는 아직 단독연구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립 저자의 상당수는 통합돌봄을 일시적으로 다룬 연구자이거나 해당 분야와 주제 교집합이 있는 연구자가 한 번 참여한 경우 등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가장 핵심적인 협력 집단은 앞서 언급한 36명으로 구성된 최대 연결 요소였고, 이 내부에서 다수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그룹을 들여다보면,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연구자가 혼합된 다학제 팀과 그 주변 협력자

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그룹 내에서 다시 일부 소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연결망을 갖추고 있어, 통합돌봄 연구 분야에서 핵심 연구자 풀(pool)을 형성한다. 반면 이 그룹 외 연구자들은 대개 2~3인 혹은 4~5인 규모의 동료들하고만 공저하고 그 외와는 교류가 없는 양상이다. 이는 연구비 과제나 학연, 지연 등에 기반한 제한적 협력이 많았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요컨대, 통합돌봄 연구협력은 한두 개의 중심 허브 그룹과 다수의 작은 주변 그룹들로 구성된 이중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통합돌봄이라는 공통 관심사 하에서도 학계의 협업 지형은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보다 폭넓은 교류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 4.3.2 핵심 연구자 및 협력 양상

〈표 5〉와 같이 공저자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자들을 확인한 결과, 윤○○ 연구자(번호 2)가 여러 지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 간호학 분야 연구자로 분류되며, 분석 대상 논문에서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생산성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는 연결 중심성 1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공동연구 연결을 보유한 연구자로 나타났고, 실제로 총 24명의 동료 연구자와 공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허브 역할을 한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 연구자(번호 1)는 9편이라는 최다 논문 게재 수에도 불구하고 연결 중심성 순위는 17위에 불과하였다. 김○○(번호 1)은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로, 통합돌봄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협력하는 저자 층이 특정 소수 그룹에 국

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는 폭넓은 연결을 맺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높은 생산성 대비 협업 범위는 좁은 연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계 네트워크 내 '전문가형 다작 연구자' vs '연결형 협업 연구자'의 대조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김○○(번호 1) 연구자는 본인 주도로 여러 편의 논문을 냈으나 주로 정해진 동료들과만 작업하여 네트워크 확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윤○○(번호 2) 연구자는 논문 수는 적어도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힌 사례이다.

연결 중심성(허브 지수) 상위권은 윤○○(번호 2)에 이어 최○○(번호 20, 0.0410), 서○○(번호 6, 0.0388), 이○○(번호 21, 0.0388), 장○○(번호 7, 0.0388)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2~4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각각 18~19명 내외의 공저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다수가 동일한 최대 협력 그룹에 속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윤○○(번호 2, 허브+브로커) - 최○○(번호 20, 2차 브로커) - 서○○/이○○(각 번호 6, 번호 21, 중간 브로커) - 장○○/박○○(번호 7, 번호 8, 허브형) 등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협력 구조가 최대 그룹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부 구조는 해당 그룹이 비교적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크임을 시사한다. 아마도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회 등을 통해 형성된 다학제적 팀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그룹이 사실상 국내 통합돌봄 연구의 허브 연구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룹에서 생산된 논문들이 통합돌봄 관련 주요 학술지에 발표되고 인용되면서, 지식 확산의 중심 역할도 함께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공저자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번호	연구자명	출현빈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빈도	비율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지표값	순위
1	김○○ (사회학)	9	0.0391	0.0238	17	0.0243	37	0.0005	5
2	윤○○ (간호학)	4	0.0174	0.0518	1	0.0575	1	0.0018	1
3	김○○ (사회학)	4	0.0174	0.0108	77	0.0174	41	0.0001	13
4	손○○ (상담심리복지학)	4	0.0174	0.0065	143	0.0152	81	0.0001	13
5	문○○ (행정복지학)	4	0.0174	0.0043	212	0.0043	234	0.0000	42
6	서○○ (사회복지학)	3	0.0130	0.0389	3	0.0509	3	0.0009	3
7	장○○ (간호학)	3	0.0130	0.0389	3	0.0509	3	0.0004	6
8	박○○ (간호학)	3	0.0130	0.0389	3	0.0509	3	0.0002	10
9	전○○ (사회복지학)	3	0.0130	0.0324	8	0.0481	8	0.0000	33
10	백○○ (사회복지학)	3	0.0130	0.0173	21	0.0173	46	0.0000	52
11	신○○ (사회복지학)	3	0.0130	0.0173	21	0.0173	46	0.0000	52
12	신○○ (사회복지학)	3	0.0130	0.0173	21	0.0173	46	0.0000	52
13	정○○ (컴퓨터공학)	3	0.0130	0.0173	21	0.0173	46	0.0000	52
14	임○○ (사회복지학)	3	0.0130	0.0130	55	0.0130	109	0.0001	16
15	이○○ (사회학)	3	0.0130	0.0086	102	0.0159	70	0.0001	12
16	문○○ (행정학)	3	0.0130	0.0086	102	0.0159	70	0.0000	28
17	유○○ (사회복지학)	3	0.0130	0.0043	212	0.0043	234	0.0000	42
18	김○○ (작업치료학)	3	0.0130	0.0043	212	0.0043	234	0.0000	61
19	황○○ (사회복지학)	3	0.0130	0.0000	411	0.0000	411	0.0000	61
20	최○○ (사회복지학)	2	0.0087	0.0410	2	0.0519	2	0.0012	2
21	이○○ (사회복지학)	2	0.0087	0.0389	3	0.0509	3	0.0009	3
22	이○○ (사회복지학)	2	0.0087	0.0346	7	0.0490	7	0.0002	11
23	손○○ (보건학)	2	0.0087	0.0216	18	0.0218	38	0.0003	9
24	김○○ (보건행정학)	2	0.0087	0.0194	19	0.0215	39	0.0003	7
25	노○○ (보건행정학)	2	0.0087	0.0194	19	0.0215	39	0.0003	7
26	김○○ (컴퓨터공학)	2	0.0087	0.0173	21	0.0173	46	0.0000	52
27	이○○ (컴퓨터공학)	2	0.0087	0.0173	21	0.0173	46	0.0000	52
28	조○○ (사회복지학)	2	0.0087	0.0130	55	0.0130	109	0.0000	18
29	남○○ (의료복지학)	2	0.0087	0.0108	77	0.0154	72	0.0001	15
30	장○○ (디자인학)	2	0.0087	0.0108	77	0.0108	123	0.0001	17
31	김○○ (간호학)	2	0.0087	0.0108	77	0.0353	17	0.0000	32
32	한○○ (간호학)	2	0.0087	0.0108	77	0.0108	123	0.0000	61
33	김○○ (사회복지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24
34	박○○ (간호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24
35	길○○ (사회복지학)	2	0.0087	0.0086	102	0.0097	138	0.0000	42
36	김○○ (작업치료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61
37	박○○ (작업치료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61
38	박○○ (작업치료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61
39	유○○ (건강보험)	2	0.0087	0.0086	102	0.0323	26	0.0000	61
40	이○○ (작업치료학)	2	0.0087	0.0086	102	0.0086	140	0.0000	61

매개 중심성(브로커 지수)을 보면 윤○○(번호 2, 0.001815)이 역시 1위를 차지했고 최○○(번호 20, 0.001170), 이○○(번호 21, 0.000908), 서○○(번호 6, 0.00090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최대 협력 그룹 내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큰 협력 집단 안에서 하위 소집단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윤○○(번호 2)과 최○○(번호 20)는 각기 간호학, 사회복지학 배경으로 서로 다른 전공 집단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윤○○(번호 2)은 보건정책 측면 연구자들 및 복지 분야 연구자들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보건-복지 학제 간 연계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 자체가 보건과 복지의 융합을 지향하는 만큼, 이러한 브로커 연구자들의 존재가 학제 간 연구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번호 6)의 경우도 지역사회 건강 분야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 두 분야 연구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일부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개 중심성 상위권 외에도, 김○○(번호 1, 0.000486)도 다수 논문을 단독 혹은 소수와 수행하면서도 네트워크에서 일정 수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번호 1)이 비록 협업 범위는 좁지만, 자신이 속한 작은 그룹을 전체 네트워크와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부분적으로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 노○○(번호 24, 25, 각 0.000337)이나 손○○(번호 23, 0.000280) 등도 매개 중심성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들은 모두 중간 규모 연결요소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연구그룹 내에서 연결 경로를 담당한 경우로 보인다.

근접 중심성 분석결과 윤○○(번호 2, 0.0575),

최○○(번호 20, 0.0519), 서○○(번호 6) · 장○○(번호 7) · 박○○(번호 8, 각 0.0509)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며, 네트워크 상에서 신속한 정보 도달 위치에 있는 연구자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특정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며, 연구 공동체 내에서 핵심 허브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대 그룹 밖의 다수 연구자들은 고립 혹은 소집단에 머물러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54명의 고립 연구자는 논문을 한 두 편 발표했으나 다른 연구자들과 교류하지 않아 네트워크 바깥에 위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학문공동체의 발전 측면에서는 지식 공유나 협력의 고리로 작용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2~3인 규모 그룹들 역시 네트워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통합돌봄 연구 분야는 협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 특정 핵심 그룹에 속한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연결과 지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학술활동의 쏠림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전문 연구자 풀이 아직 한정적이고 저변이 넓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통합돌봄이 융합 연구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를 심화적으로 다루는 연구자층이 얇은 현실을 보여준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공동체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 및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와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합돌봄 지식 구조를 규명하였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관련 학술논문 230편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시출현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 주제군과 중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공저자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 협력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주제 영역(노인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실행 및 사례분석, 지역사회계속거주 제도 및 서비스 운영, 탈시설 및 취약집단 지원, 연구동향 및 지식 구조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응집도가 높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커뮤니케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상호 긴밀히 연결된 구조였다. 이는 통합돌봄 담론이 보건·복지·주거 등 여러 분야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특성을 반영한다. 다만 노인 대상과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주제가 분리된 군집으로 나타나, 실제 연구의 관심이 노인 중심으로 편중되고 취약계층(장애·정신건강)의 논의는 주변적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의료 연계나 디지털 기술 활용 이슈는 독립군으로 부각되기 보다는 다른 주제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해당 영역 연구가 아직 보조적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향후 통합돌봄 연구에서는 장애인·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모델 개발, 보건의료와의 연계 전략, 스마트 돌봄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통합돌봄 연구자들의 협력 구조는 높은 분절성을 보였다. 464명의 저자들 중 공저 관계로 연결된 비율은

매우 낮았고, 네트워크가 160여 개의 작은 그룹으로 쪼개져 있었다. 이는 동 분야 연구가 여러 학문에 걸쳐 이루어지면서도 학제 간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연구자들이 각자 소규모 팀 내에서만 협업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구의 중복이나 지식의 과편화 우려가 있으며, 학문적 축적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 최대 협력 그룹(36명 규모)이 존재하여 보건-복지 연구자 간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소수 허브 연구자에 의존하는 생태계였다. 이는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 관련 학제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융합학회 세션,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현재 흩어져 있는 연구인력을 묶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식별된 핵심 브로커 연구자들(예: 윤○○, 최○○ 등)이 수행하는 중개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연구자들이 연결망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합돌봄 연구의 협업 문화 형성과 지식 공유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를 대상으로, 주제 구조(키워드 네트워크)와 협력 구조(공저자 네트워크)를 동일 데이터셋에서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구조를 '내용-협력' 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통합돌봄 연구가 어떤 하위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공백이 있는지, 협력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분절·연결되는지를 가시화함으로써 연구 지원 정책과 현장 기반 지식 확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분석 대상 문헌을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다 보니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 관련 연구 성과를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 추후에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셋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 시 키워드 추출과 정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예컨대 어떤 개념을 합치고 분리할지, 출현 빈도에 따른 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예: 토픽모델링, 워드임베딩 등)을 함께

활용하여 결과의 검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적 분석으로서 시계열 변화나 인과관계를 다루지 못했다. 통합돌봄 연구가 2018년 이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특정 사건(예: 코로나19) 전후로 연구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동태적 측면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구자 생산성과 영향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인용 분석이나 주제분야별 세부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순 공저 관계만으로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 질이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통합돌봄 분야 논문의 인용 네트워크나 기관간 협력망 등을 분석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 지도를 생성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순희, 문재원 (2024). 코로나19 전후 돌봄 연구의 변화와 쟁점: 지난 10년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동향 탐색. *젠더와 사회*, 1(35), 79-113.
- 김시은, 유성은 (2022). 체계적 문헌고찰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노인돌봄과 노인공간 연구 동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9), 91-99.
- 김진원, 이한슬 (2024). 국내 건강정보관련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1), 411-43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411>
- 김정석,곽정란, 김미선, 박세경 (202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3(2), 91-122. <http://dx.doi.org/10.19049/JSPED.2022.23.2.04>
- 김주섭, 이승태, 금효진, 송아름, 김선태 (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감염병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SFTS, 뎅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303-3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1.null.55355>
-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본계획(안)*.
- 박수선 (2024).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현황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인식 연구: 노인대상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산업*, 6(4), 29-38.

- 송현경 (2025).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291-3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291>
- 유애정, 박현경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대한공공의학회지*, 6(1), 75-97.
- 윤현준, 조현 (202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사회적 이슈 및 연구 동향 분석. *대한보건연구*, 48(4), 1-14. <https://doi.org/10.22900/kphr.2022.48.4.001>
- 이재윤 (2006).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이태현, 문경주, 김정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2), 2345-2360.
- 전윤미, 강기정 (2019). 빅데이터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키워드 및 사회연결망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4(2), 251-269.
- 정재연, 남석인 (2024).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보건·복지·돌봄 협업사례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9(1), 121-152. <https://doi.org/10.21194/kjgsw.79.1.202403.121>
- 정지원, 김정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적 이해와 실천적 함의: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6(2), 65-97. <https://doi.org/10.33071/ssricb.46.2.202205.65>
- 최인영, 이민아, 장유미, 백진경 (2023). 국내 커뮤니티케어디자인 관련 연구 경향 분석: KCI 등재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36(2), 339-355. <https://doi.org/10.15187/adr.2023.05.36.2.339>
- 최지희, 장숙량, 박수잔, 황종남, 최은희, 최수현, 김민경, 김석규, 한금희, 박선영, 박주희, 김종우 (2025).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증례 시리즈 연구. *보건사회연구*, 45(2), 78-100.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7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 (정책보고서 2022-20).
- 한영란 (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간호사 케어 코디네이터.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3(3), 311-325. <https://doi.org/10.5932/JKPHN.2019.33.3.311>
- 통계청 (2025). 2025 고령자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출처: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8832](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8832)
- Newman, M. E. J. (2001). The structure of scientific collaboratio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8(2), 404-409. <https://doi.org/10.1073/pnas.98.2.404>
- Park, Byeungtae, Kim, Pyeong-Man, Kim, Chul-Min, Choi, Chang-Jin, & Shin, Hyun-Young (2025).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including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ertiary hospitals in the republic of Korea. *HealthCare*, 13(10), 1156. <https://doi.org/10.3390/healthcare13101156>
- Park, Yoonseo, Park, Sewon, & Lee, Munjea (2022). Analyzing community care research trends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15, 1493-1510.  
<https://doi.org/10.2147/JMDH.S366726>

Van Eck, N. J. & Waltman, L. (2010). Software survey: VOSviewer, a computer program for bibliometric mapping. *Scientometrics*, 84, 523-538. <https://doi.org/10.1007/s11192-009-0146-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in-young, Lee, Mina, Jang, Yu Mi, & Paik, Jinkyung (2023). A meta-analysis on domestic research trends of community care design: articles of KCI accredited journal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6(2), 339-355. <https://doi.org/10.15187/adr.2023.05.36.2.339>

Choi, Jihee, Jang, Soong-nang, Park, Susan, Hwang, Jongnam, Choi, Eunhee, Choi, Suhyeon, Kim, Minkyung, Kim, Seok-gyu, Han, Keumhee, Park, Sunyoung, Park, Juhee, & Kim, Jongwoo (2025). Resident-led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case management in depopulated areas: a case series stud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5(2), 78-100.  
<https://doi.org/10.15709/hswr.2025.45.2.78>

Han, Young Ran (2019). Community care and nurse care coordinat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3), 311-325. <https://doi.org/10.5932/JKPHN.2019.33.3.311>

Jeong, Jiwon & Kim, Cheong Seok (2022). Discourse and practice i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us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locality and glob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46(2), 65-97. <https://doi.org/10.33071/ssricb.46.2.202205.65>

Jun, Yun-Mi & Kang, Ki-jung (2019). Communitycare key word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4(2), 251-269.

Jung, Jae Yeon & Nam, Seok In (2024). A study on collaborative case management experiences in the health, welfare, and care fields for community car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9(1), 121-152. <https://doi.org/10.21194/kjgsw.79.1.202403.121>

Kim, CheongSeok, Kwak, Jeongran, Kim, Miseon, & Park, Sekyung (2022). Text min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are for disabled peopl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3(2), 91-122. <http://dx.doi.org/10.19049/JSPED.2022.23.2.04>

Kim, Jin Won & Lee, Hanseul (2024). Bibliometric analysis on health information-related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411-43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411>

Kim, Ju-Seop, Lee, Seungtae, Geum, Hyojin, Song, Areum, & Kim, Sun Tae (2025). An analysis

- of research trends in infectious disease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focusing on COVID-19, Influenza, SFTS, Dengue.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303-3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1.null.55355>
- Kim, Sieun & Yoo, Sung Eun (2022). Research trends on elderly care and elderly space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9), 91-99.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 A Stud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ommunity Integrated Care (Policy Report No. 2022-20).
- Kwon, SoonHee & Mun, Jae-Won (2024). Changes and issues in care research before and after COVID-19: exploring key trends through a keyword network analysis over the past decade. *Gender and Society*, 1(35), 79-113.
- Lee, Jae Yun (2006). Centrality measures for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191-214.
- Lee, Taihun, Moon Kyung-Joo, & Kim, Cheong Seok (202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ommunity networks for integrative community car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2), 2345-236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Basic Plan (Draft) for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Pilot Project.
- Park, Su Sun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on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care: focusing on case management for the elderly. *Contents and Industry*, 6(4), 29-38.
- Song, Hyun-Kyung (2025). A keyword network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igital citizenship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4), 291-3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291>
- Statistics Korea (2025). Statistics on the aged 2025. Statistics Korea website. Available: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8832](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8832)
- Yoo, Ae Jung & Park, Hyun-Kyung (2022).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care policy: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s. *Public Health Affairs*, 6(1), 75-98. <https://doi.org/10.29339/pha.22.7>
- Yun, HyunJun & Cho, Hyun (2022). An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on community care by topic modeling.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8(4), 1-14.  
<https://doi.org/10.22900/kphr.2022.48.4.001>